



## 4월의 양돈관리 포인트



이재춘 원장

(한국양돈컨설팅 그룹, 한별피그클리닉)

**금**년에도 설사병으로 피해를 보는 농장이 많이 속출 하였으며 4월 이후에도 설사병의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 번 발병했던 농장이라도 수개월 이내에 다시 재발병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는 여타 질병과의 관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평상시 방역과 기타 기본관리 사항들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을 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호흡기 질병, 봄철 백신접종 그리고 환경관리에 대해서는 지난호에서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이번호에서는 지속적으로 설사병이 다발하는 농장의 문제점과 4월의 주요 사양관리 몇가지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 1. 후보돈 구입계획 수립

매년 여름철 임신율이 저조하고 또한 모돈의 도태율이 높으므로 평상시 보다 후보돈이 추가로

요구된다.

도입	교배	분만	출하
4~5월	6~7월	10~11월	4~6월

#### 가. 후보돈 구입시기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여름철 교배를 목적으로 후보 입식을 할 경우 4월 또는 5월까지는 농장내로 도입이 완료 되어야 한다.

**나. 후보구입을 적기에**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종돈장과 계약을 해 두어야 한다. (6개월 전)

**다. 매월 전체 모돈의 5%에** 해당하는 수의 후보돈을 구입하는 경우 4월과 5월에는 약 50% 정도를 추가로 도입하는것이 좋다. 즉 모돈 200두 규모의 농장인 경우 매월 10두(5%)의 후보를 도입한다면 이 시기에는 50%를 늘려 15두씩 도입을 한다.

**라. 도입한 후보돈은** 농장마다 기본 방역 프로그램을 빠짐없이 적용 시킨다.

또한 이 후보돈들은 미약발정 및 수태율 저하

가 두드러지는 여름철에 교배가 들어가게 되므로 출생일령별로 적기에 초교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잘못하면 많은 후보돈이 초교배에 실패하고 장기 문제돈으로 손실을 주게 되기도 한다.

생후 7~8개월 사이에 초교배가 들어가면 좋다.

**(후보돈 구입 요약)**

- 후보 구입처 선정
- 후보 구입시기 결정
- 후보 구입두수 결정
- 후보돈 방역 계획 정립
- 후보돈 사양관리 숙지

**2. 사료 관리**

날이 풀리면서 사료통과 피드빈 등에 대한 오염 위험이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대청소를 실시 하여 봄철 돈군의 건강을 최고상태로 유지해 보자.

**가. 모돈 사료통의 주기적인 청소**

사료통 주변에 붙어있는 사료 찌꺼기 등을 주기적으로 깨끗이 청소해 준다. 특히 식분발생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사료통에 사료가 그대로 남아 부패하지 않도록 한다.

**나. 비육돈 사료통 비우기와 주기적인 청소**

비육돈의 사료통 비우기는 주 2회 정도 실시 하는 것이 좋다. 습식 급여의 경우는 주변의 사료 찌꺼기가 특히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주 1회 급여 및 주변의 청소를 해 주어야 한다.

**다. 피드빈 비우기와 청소**

피드빈 관리에 소홀할 경우 변패된 사료를 모 르는 사이에 급여하게 되는데 이 때 많은 돼지들



◎후보돈 구입을 적기에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종돈장과 계약을 해 두어야 한다.

이 집단적으로 병적인 증세를 나타내며 치료도 어려울 뿐더러 회복기간 또한 길어지게 된다.

**라. 모돈의 사료급여량 조절**

일반적으로 봄철에 과비 모돈의 발생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 겨울철 다소 늘려 주었던 양을 기온이 상승하는 시기이므로 다시 정상 급여수준으로 맞추어 주어야 한다.

**마. 사료재고 관리**

기온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사료의 보관기간도 단축 되어야 한다.

**(사료관리 요약)**

- 모돈 사료통 관리
- 비육돈 사료통 관리(주기적인 청소와 비우기)
- 피드빈 비우기와 청소
- 모돈의 사료량 조절
- 사료 재고관리

**3. 약품 관리**

겨울철 약품의 보관상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약품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한다.

**가. 약품의 재고 파악**

약품의 재고 파악은 월 1회 이상은 이루어져

야 한다. 이때 불필요한 약제 또는 오래도록 사용하지 않는 약제 등을 가려내어 반품 및 폐기처분한다.

### 나. 유효기간 확인

약제는 보관이 잘되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안정성이 떨어지므로 유효기간을 철저히 확인하고 가급적 유효기간에 근접한 약제부터 사용한다.

### 다. 약품별 보관방법 재확인 후 비치

약제마다 보관 방법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비치해 둔다. 비치 장소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청결한 곳이어야 하며 고온, 고습한 곳은 약제보관 하기에 부적절한 장소이다.

### 라. 백신 유효기간 및 보관상태 점검

백신은 온도에 민감하므로 취급에 특히 주의를 요한다. 또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백신이라도 보관상태에 따라 조기에 변질이 될 수도 있으니 유효기간과 함께 백신의 성상을 잘 관찰해야 한다.

#### (약품관리 요약)

- 약품 재고파악
- 약품의 유효기간 확인
- 약품 보관방법 및 용량 용법 별로 재 분류
- 백신 유효기간, 보관상태 및 성상 확인

## 4. 이러한 농장에서 설사가 많다

설사발생이 문제되는 농장들에서 공통적으로 다음의 요인들이 관여되고 있었다.

- 1) 임신사가 춥고 지저분하다 (겨울철)
- 2) 임신기 모든 체형관리 미흡 (주로 과비가 문제)
- 3) 분만틀 수세 및 소독이 미흡 (지저분한 분



◎자돈의 설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깨끗한 돈사환경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만들)

4) 분만틀과 임신스톨이 한 돈사내에 있다 (소규모 농장의 경우)

5) 보온등 관리가 부실 하다 (갯수 부족, 높이 조절 안됨)

6) 자돈이 셋바람의 영향을 받는다.

7) 생후 3일령까지의 집중관리가 안되고 있다.

8) 적극적인 입질훈련이 안되고 있다.

9) 분만전후 모든관리 미흡 (특히 음수공급이 잘 안됨)

10) 분만사의 청결도가 극히 저조 (가스, 분뇨, 먼지, 과습 등)

11) 설사관련 백신접종이 일관성이 없다.

12) 분만후 모든 사료량을 급격히 늘린다.

13) 소독 횟수 절대 부족 (방역관리 미흡)

14) 분만사 온도 관리 부실 및 일교차가 크다 (10도 이상)

15) 모든 산차구성 및 저산차 관리 미흡

16) 외부 구입돈 및 출하차량 등에 대한 방역 미흡

17) 농장내 타 질병의 발병 및 잠복

지난 겨울철 TGE, PED와 같은 설사병의 발생건수는 예년에 비해 줄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증세는 다소 약하게 나타나는 농장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다. 질병의 상재화로 인해 돈군의 면역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아진다.

4월이면 설사병의 발생은 점차 줄어드는 시기이다. 그러나 발병 위험은 계속 남아 있으므로 방심 하다가는 또다시 피해를 입기 쉽다. 무엇보다 기본관리를 충실히 이행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養豚**